

자연, 생명, 인간의 삶과 생태의 가치 조감

하정웅미술관, 오는 3월31일까지 '생태조감도'展

김신윤주, 김안나, 문선희, 박소연 등 작가 4명 참여
'코로나19 시대' 생명의 소중함 담은 20여 점 선봬

지난 한 해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최고의 질서인 자연에 대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술계도 마찬가지다. 지구촌 생태와 환경과 기후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상은 미술계에서도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분관 하정웅미술관 2층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생태조감도'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김신윤주, 김안나, 문선희, 박소연 등 네 명의 작가가 설치, 영상, 사진, 회화 등 2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이들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생태계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 사회의 생태, 다양성이 더 풍부하게 증대되는 마음의 생태, 그리고 다름의 특이점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의 연결망 속에서 생태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품을 보여준다.

생태는 인간의 둘러환경으로서의 환경의 의미라기보다는 생명, 사물, 자연, 인간 등이 연결망을 형성해서 어우러진 형태이다. 도미노처럼 연결된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코로나 사태는 생태의 부조화가 불러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의 문제는 인류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며 우리의 삶 속 가까이와 와 있다. 생태 문제는 인류의 지속적 관심 대상이었으나 관심의 우선순위에 밀려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생태에 대해 각성을 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다양한 상태, 자연과 사회 안에서 생겨나는 연결망 등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신윤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공공프로젝트를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사진 등의 다양한 작업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 작품은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와 서로 연결돼 사회 생태로 확장되어진 의미를 담아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들을 주제로 각 사회의 구성원들과 제작한 '마음 조각' 킷트를 연결해 보여준다.

김안나는 여러 매체를 다루는 멀티미디어 작가이다. 이번 전시작품 '숨'은 가상공간이다. 이 작품은 실제 숲속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업을 했으며 바깥의 기후와 대기오염 농도에 따라 반응해 새로운 이미지와 화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김신윤주 작
'ONE HEART 1'



김안나 작 '숨'

이 작품은 현재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와 함께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 관계하는 연결망에 대한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다.

문선희는 현대사회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고민 등의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사진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고라니를 주제로 한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작가는 흑백 졸업 앨범의 형식을 차용한 고라니 초상사진 연작으로 각 개체의 고유성을 담백하게 드러낸다.

관객을 정면에서 응시하는 사진 속의 고라니들은 포획과 로드킬로 인해 엄마를 잃은



박소연 작 '비타민나무'

새끼들로, 그들의 표정과 눈빛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와 '가해'의 프레임이 내포한 부조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박소연은 식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가이다. 서로 어우러지며 공존한 건강한 생태를 보여주듯 그녀의 작품은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모여 다채로운 감각을 품으며 조화로운 화면을 보여준다. 작가의 작품은 몇몇 식물에 국한되지않 확장돼 우리주변의 흔하고 친숙한 자연의 생태를 되돌아보며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인류, 예술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전시작품과 함께 건강한 생태 문화의 가치를 조감해 보고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망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방식과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다이 기자

아시아문화원, 장애인 맞춤형 전시기획 눈길

오디북, 점자자료 제작 등 배리어 프리 서비스 도입

아시아문화원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양한 전시관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시아문화원은 최근 '아시아의 표해록: 바닷길, 아시아를 잇다' 전시 관련 오디오북 3권을 제작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드림' 등을 통해 전국 공공·민간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시아의 표해록: 바닷길, 아시아를 잇다' 전시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나온 표류기를 발굴해 선보인 것으로, 지난 3년간 아시아문화

원 아시아문화연구소와 부경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사업단이 협력해 번역한 '아시아의 표해록'과 '조선표류일기'(2020, 소명) 발간을 기념하는 전시였다.

특히 문화원은 부경대와 공동으로 추진한 해양 콘텐츠 순회 전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전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도입해 추진했다.

먼저 지난 7월 부경대에서 진행된 전시 기간 동안 부산점자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전시 설명자료를 점자로 제작했다.

점자 자료는 전시 제목, 기간,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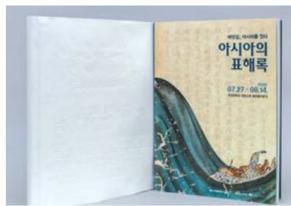
구성과 내용 등 주요 정보를 세 페이지에 나눠 설명해 시각 장애인들도 전시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전시장 입구에는 일반 자료와 점자 자료를 같이 비치해 장애인들도 점자 리플렛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우도록 유도했다.

전시 콘텐츠 일부를 점자를 꾸민 점도 돌보았다.

전시 개막식에는 부산점자도서관장(관장 박광문)을 비롯한 장애인 직원들을 초청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해설 서비스도 처음 시도했다.

아울러 수어 동영상도 삽입한 전시 해설 영상물도 제작해 코로나 시대에



점자 리플렛을 넣은 도록.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점자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국내 처음으로 도록 표지 제목을 점자로 제작해 부착하고, 점자자료를 같이 넣어 시범 제작한 도록도 국내에서 첫 시도했다. 배의 외형을 따라 선을 그린 후 도드라진 요철형으로 책갈피를 제작해 시각 장애인들이 조선 전통 배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김다이 기자

웹툰으로 만나는 광주의 일상이야기

광주관광재단, 매주 수요일 SNS로 '내 이름은 광주' 소개

광주관광재단이 광주 도시를 배경으로 광주 일상을 표현한 웹툰 '내 이름은 광주'를 제작해 광주홍보에 나섰다.

'내 이름은 광주' 웹툰은 광주 관광객(관광지, 맛집 등)을 전광주(33세, 웹툰작가)라는 가상의 인물의 일상 속에 녹여 광주 이야기를 담아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프러스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매주 수요일 연재하고 있다.

'내 이름은 광주' 웹툰은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1화에서 광주 애호박 찌개, 2화는 5·18민주화운동, 양동통닭 3화는 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 포토존 이벤트 이야기를 주제로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내 온라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관광재단에서는 '전라도 천년의 얼굴' 저서를 기반으로 한 광주의 의로운 어벤저스 50인 관광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 /김다이 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